

일본어의 「へ'자(への字)」 발화에 관한 유효성 검증

최 장 원*

allanche@korea.ac.kr

차례

1. 들어가기
2. 선행연구와 문제제기
3. 「へ'자(への字)」 발화의 유효성 검증실험
4. 실험의 결과 및 분석
5. 맺는말

요 지

本稿では、日本語の發話中に現れる韻律の特徴を「への字」タイプとして、アクセント核の位置が變形された合成音聲を實驗材料とし、「東京語話者」と「韓國人學習者」と「中國人學習者」に「日本語らしさ」の観点で評価を依頼した。その結果、「東京語話者」の判斷する「日本語らしさ」には本來單語に付隨しているアクセント核の位置が重要な判斷の根據と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アクセント核の位置が變形されて、しかも、「への字」の韻律のパターンで現れる音聲に對しては「頭高型」の例文が最も「日本語らしくない」と感じ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このような結果は、韓國人學習者が、日本語の韻律を習得しようとするときの學習方法にとりいれることもできよう。つまり、「東京語話者」は「頭高型」の單語が變形されると日本語らしくないと感じるので、アクセント型の暗記や發話の練習は「頭高型」を中心に行うのが効果的だと言える。また、「韓國人學習者」は、單語ごとに付与されていアクセント核の位置とは關係なく、すべての例文が「への字」タイプで發話されている音聲に「日本語らしさ」を求め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韓國人學習者の日本語音聲に對する先行研究から得られた「平坦調」という發話における特徴をもち、聽覺の面では「への字」パターンの韻律から「日本語らしさ」を感じ、誤った判斷をする、あるいは、「東京語話者」との大きな違いを示している韓國人學習者にはもっと体系的で學習者の誤用パターンを調べた上での日本語の韻律に對する教育が必要であることを示す結果となった。

さらに、同じ學習者群に屬し、母語が異なるグループとして「中國人學習者」も被験者に行っているが、この場合は、母語の聲調パターンに多いとされる句の最後の拍が下がるパターンに「日本語らしさ」を求め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これは、中國人學習者を對象にして、日本語の韻律の習得に妨げとなる要因を調べた先行研究とも一致した結果であった。

このように、目標言語の韻律の特徴を捉えるにあたって、母語の違いによってその捉え方が異なることが學習者にはみられるため、目標言語にある韻律の特徴には注意が向けられにくいのである。ここで目標言語の韻律の特徴が韓國人學習者には「聞き取れない」という表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現を避けて、「注意が向けられない」と表現するのは、學習者に日本語の韻律の特徴として現れる高低の差を比較出来るような「比較對象」を持つことで、韓國語のソウル方言では弁別力を持たない聲の高低の差へ注意がむくようになるからである。この「比較對象」を持った場合の聽覺力の効果については今後の課題にし、次期にご報告することとした。

키워드 : 「への字」, 「日本語らしき」, 악센트 핵, 일본인의 평가

1. 들어가기

최근, 일본어 학습자에 대한 음성교육이 강조되어지는 가운데, 특히 일본어 음성의 운율적 특징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스키토(1993)는, 음성에는 [단음의 특징]과 [운율의 특징]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표기되어지지 않는 운율적 특징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유사와(1990)는 음성언어의 요소에는 모음, 자음등의 분절음소외에 초분절음소로서 악센트, 인터네이션, 리듬 등이 있어, 이러한 요소들은 일본어로서의 자연스러움을 구성하는 요인이며,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도 더욱더 많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일본어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한 일본어 교육학회(1991)의 1986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경도내의 일본어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88명 중, 필요도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는 59.0%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4기능 중 [말하기]를 선택하고 있고, 앞으로 학습하고 싶은 항목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는 38.1%가 [자연스러운 발음과 인터네이션으로 말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1위의 결과로 나타난 [경어를 사용한 발화]의 36.3% 다음으로 높은 결과로서 외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일본어 발화능력과 발음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학습자들의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어떠한 학습자의 음성이 일본인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음성인지, 반대로 어떠한 패턴의 음성이 일본인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들리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조사 방법으로는

일본어 음성 교육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일본어의 「への字」¹⁾라고 하는 운율적인 특징을 본 조사의 대상으로 한다. 먼저 운율을 변형시킨 음성합성음을 만들어 서로 다른 악센트 핵을 가지는 문장의 발화가 「への字」의 운율로 발화되었을 때, 각 변형 운율의 음성에 대한 일본인의 평가는 어떠한가를 알아본다. 이것은 학습자가 이러한 음성으로 일본어를 발화 하였을 때 일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학습자 자신이 이러한 음성으로 발화를 하였을 경우 일본인의 느낌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인의 평가치와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への字」의 운율로 발화된 일본어 발화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한국인 학습자의 지각 결과는 어떠한 패턴화를 보이는지를 일본인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지각의 패턴화를 찾는 이유로는 청각 기관은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별언어에 있어서의 청각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별언어의 체계에 따라 일정하게 범주화 된 카테고리(Categorical Perception) 안에서 인지를 하고 있음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기 때문에(Cooper, F.S. et al: 1951), 일본어의 운율에 관한 범주화가 이루어져 있는 일본인 네이티브와 일본어의 체계와는 다른 운율 체계를 가지는 한국인 학습자의 인지의 차이를 밝혀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운율에 대한 청각 인식적 오용패턴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와 문제제기

먼저 일본어의 운율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인 학습자의 발화를 이용하여 일본어 화자의 발음과 비교하는 연구와 그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1) 上野田鶴子(1989) 「文法とイントネーション」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第2巻, 明治書院, pp.298-315

上野田鶴子(1989)에서는 인터네이션의 피치 패턴은 발화의 첫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나타나며 서서히 하강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터네이션은 날숨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것이며 폐로부터의 날숨이 발화시간과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피치 패턴의 하강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들의 감각으로는 일본어의 운율이 아주 단조롭게, 시간과 함께 하강하는 「への字」 형태를 그리는 형상으로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어 음성 교육에서는 일본어의 운율이 「への字」로 나타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①민광준(1989):한국인 학습자의 낭독문 발화를 녹취하여 일본어화자에게 일본어로서의 자연스러움이라는 척도로 평가를 하여 단음보다는 악센트, 인터네이션, 리듬등을 포함하는 프로소디가 중요하다는 지견을 얻을 수 있었다.

②미즈타니외(1991):한국인 학습자의 발화문에서 나타난 음향적 특징을 분석 보고하고 있다.

③마쓰자키(1999):한국인 학습자의 발화문에서 나타난 음향적 특징을 분석 보고하고 프로소디 그래프라고 하는 운율적 특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교육용 그래프를 소개한다.

④나카가와외(2001):음성 교육에 있어서 종래의 단어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구와 절 단위를 채택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분석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분야로서는 일본어의 운율적인 특징 중 악센트의 청취력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⑤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실시된 ESOP²⁾(Experimental Study On Prosody)의 연구팀에서 「東京語アクセント聞き取りテスト」→모국어별 학습자의 악센트 청취에 관한 연구와 인터네이션에 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한국인 학습자에 대한 연구로는 이유사와(1997,2000)등이 있다.

이러한 종래의 발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부터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발화문에는 일본어가 갖는 운율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평탄조의 발화문]이라는 지견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동시에 이러한 특징이 일본어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는 지견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③의 마쓰자키(1999)가 일본어의 운율적 특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그래프를 제안하였던 것은 학습자에게 일본어 운율의 특징을 파악하기 쉽다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지만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적으로 습득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다른 발화문으로의 응용과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 어느 정도 정해진 문장 안에서의 시각적 정보의 제시는 가능하겠지만 여러 발화에 따라 변형되는 운율 정

2) 鮎澤他(1997) 「『東京語アクセント聞き取りテスト』について」 『21世紀の日本語音聲教育にむけて』文部省科研究費「國際社會における日本語についての總合的研究」研究班3、平成8年研究成果報告書、pp.179-204

鮎澤他(2000) 「アクセント習得の縦斷研究—3年半の調査結果—」 『第14回日本音聲學會全國大會予稿集』pp.177-182

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면에서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 일본어 악센트의 청취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폭 넓은 모국어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략적인 특징은 알 수 있으나 한국인 학습자에 국한 시켜 놓고 보았을 때는 그 자료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특히 악센트 청취에 대한 정답률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의 악센트를 어떠한 패턴으로, 즉, 몇 번째의 박에 오답이 집중되는지, 그 오답의 패턴은 두고형, 평판형, 미고형, 중고형 등에서 어떻게 분포되어지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오용례의 패턴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알 수가 없어 추가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상기의 선행연구에서 얻은 한국인 학습자의 발화의 특징과 악센트의 청각력의 특징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은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 운율의 특징을 습득하여 발화에 응용을 하려고 할 때, 피해야 하는 운율패턴, 악센트 형과의 관계를 조사하기로 한다. 본 실험에서는 일본어의 악센트를 변수로 두어 구(句)의 발화를 「への字」로 통제한 음성을 사용하여 이 음성에 대한 일본인의 평가와 한국인의 평가를 비교 분석한다.

3. 「‘へ’자(への字)」 발화의 유효성 검증실험

3.1 실험목적

학습자의 의식 중에는 일본어에 있어서 교육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동경방언(이하 동경어)의 발화문에 나타나는 피치의 변화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 지각하는 의식 속에는 패턴화 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인 학습자와 동경어 화자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또 학습자 그룹에 있어서 한국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어를 달리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학습자 중에서도 언어 체계를 달리하는 그룹 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본다. 그 대상으로는 모어에 피치의 변화(성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 특징은 일본어의 피치의 변화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 그룹간을 비교하기로 한다.

조사에 사용하는 음성은 합성 음성을 사용한다. 그 합성음성음은 동경어의 운율특징과 동일한 특징을 갖는 실험 항목도 있으며 동경어 화자의 반응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의 하

나로 동경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실험 항목도 배치하기로 하였다. 일본어에 없는 패턴의 음성에 대한 동경어 화자의 평가는 상당히 낮은 평가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와 비교한 학습자의 평가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험의 통제에 사용되는 요소에 학습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의 차이를 극대화 시켜 보고자 한다.

3.2 피험자 정보

실험은 2002년 11월에 일본의 동경 외국어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얻었다. 청취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 수는 데이터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그룹 10명으로 하였다. 그 숫자는 동경어 화자(가나카와, 사이타마출신자를 포함) 10명과 한국인 유학생 10명, 중국인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대상은 학부 1,2학년에 재학중인 학부생이며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은 3년 이하로 제한하였다. 음성교육은 1,2학년의 전공과목으로 이수를 한, 또는 이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3.3 실험 방법과 내용

실험항목으로는 악센트형별(평관형, 미고형, 중고형, 두고형)의 문장을 만들어, 동경어 화자의 음성을 녹취한다. 녹취 음성을 사용하여 [音聲録聞見 for Windows ver.1.03]³⁾의 PARCOR 분석 합성 프로그램으로 각 예문별로 원음을 포함한 7개의 운율의 변형된 합성음을 만든다. 합성음의 종류와 예문은 3.3.1에서 3.3.3에 걸쳐 소개하기로 한다.

본 실험에서의 평가 방법은 운율이 변형된 일본어 음성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7단계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각 항목간의 간격이 계량화된 등간격이 아닌 특징을 갖고 있으나 통계상 분석의 용이함이라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 순서적으로 바꾸어 가장 자연스러움을 7, 가장 부자연스러움을 1로 계량화하여 분석하였다. 또 실험에 사용되어진 A형의 음성은 모어화자의 발화를 변형 없이 그냥 사용하여 학습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3) 音聲録聞見 for Windows는 동경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인지언어, 언어의학 강좌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프로그램이다. 음성 파형 편집, 사운드 스펙트로그램, 피치의 추출, 포먼트 분석, PARCOR 분석, PARCOR 합성 기능을 제공한다. PARCOR 분석과 PARCOR 합성에 대해서는 오야마(1989)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datel.co.jp/onsei/index.htm>

항목이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 항목은 각 예문별로 원음을 포함하여 7개의 변형 운율을 가지며 일본어에는 4가지의 악센트 형이 있으므로 총 실험항목은 28개의 변형 운율의 음성이 된다. 실험시간은 18분 정도이며 실험 항목은 CD에 수록을 하여 들려 주었다. 또한 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かえりに・みんなで・花見をしよう」라는 예비 발화문을 사용하여 변형 운율에 대한 판단의 연습시간을 두었다. 실험 항목의 배열에 관해서는 먼저 일본어 화자로부터 녹취한 원음을 2번 제시를 한다. 다음부터는 무순위로 배치된 실험항목을 들려 주었다.

3.3.1 청취 실험용의 조건과 예문

1) 청취 실험용 예문의 조건

- a. 예문에 사용되는 단어는 피험자중 초급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일본어 능력시험3급 어휘표에서 발췌.
- b. 예문은 동일한 악센트형을 갖는 단어로 한다.
- c. 예문 안에서의 명사구는 명사 + 1박자의 조사(보조사)로 구성되며, 동사구는 문말에 위치하게 하여 일본어의 가장 간단한 통사구조를 반영한다.

2) 예문

평판형 문장→はがきや・てがみで・きもちをつたえる。

미고형 문장→いもうと'は・おとうと'と・でかけま'した。

중고형 문장→なつや'すみに・やまの'ぼりに・いきた'いです。

두고형 문장→テレビと・カ'メラを・か'えしてください。

3.3.2 변형 합성음의 특징

1) 동경어 악센트의 句頭の 상승조

동경어의 악센트는 단어의 첫 박의 높기와 두 번째 박의 높기가 다르다. 첫 박이 높고, 두 번째 박부터 낮아지는 타입으로는 두고형이 있으며, 첫 박이 낮고 두 번째 박부터 높아지며 두 번째 박을 포함하여 그 이후로 악센트핵이 나타나는 패턴에는 미고형과 중고

형, 두 번째 박부터 높아지며 악센트 핵이 나타나지 않는 패턴에는 평관형이 있다. 본고에서는 변형 운율의 패턴에 句頭의 상승조를 동반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への字」패턴의 변형 운율의 합성음성을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실험항목이 3.3.3에서 소개하는 변형운율 패턴의 B型·C型이다.

2) 동경어 악센트의 하강조

스기토(1993)에 의하면 동경어의 악센트의 음향적 특징인 피치가 하강하는 곳에서 일본 사람은 악센트 핵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악센트 핵의 위치에 따라 일본어의 악센트형으로 분류가 가능한 것과 같이 각 단어에 따라 악센트 핵의 위치가 다르며 악센트 핵이 나타나지 않는 형태도 존재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본어의 미고형, 예를 들면, 명사 +1박의 조사의 명사구의 구조하에서 보면 조사 앞의 박자에 악센트 핵이 놓이는 변형 운율로 통일을 하기로 하였다. 물론 악센트핵의 위치를 미고형과 같은 패턴에 고정을 시켜서 둔다면 변형 운율에 있어서의 하강조를 중고형 패턴에 맞추었을 때와 두고형의 위치에 맞추었을 때와의 변형 음성을 사용한 결과의 차이는 발생 할 것이다. 그러나 단어 안에서의 악센트 핵의 변화에 따른 지각차이에 관해서는 崔壯源(2003)에서 박자별 오용 패턴은 崔壯源(2004)의 별도의 연구 보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への字」타입의 하강조의 위치는 각 구의 마지막 박만이 하강하는 미고형의 패턴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러한 미고형의 패턴은 일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형 운율의 실험 항목으로 첫 박과 두 번째 박의 높이의 차이가 없이 높게 지속되어 각 구의 마지막의 박만이 하강을 하는 패턴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실험항목이 3.3.3에서 소개하는 변형운율 패턴의D型·E型이다.

또한 한국인 학습자의 발화문에 있어서의 커다란 특징으로 나타나는 평탄조의 음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句頭의 상승조와 하강조를 갖지 않는 변형 운율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실험항목이 3.3.3에서 소개하는 변형운율 패턴의 F型·G型이다.

3) 동경어의 각 句와 句에 있어서의 운율의 특징

본 실험에서는 기계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율 통제를 하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실험 음성을 얻기 위하여 사토(1991)에서 제시한 句와 文에 나타나는 인터내이션의 특징을 이

용하기로 한다.

일본어에 있어서 단어의 악센트는, 음절(정확히는 모라)음의 고저 배치에 의해 기술되어 있지만 발화 단위에 나타나는 句에는 句를 구성하는 발화에는 악센트에 의존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터네이션의 패턴이 있어(話調成分:이하 발화성분으로 칭함), 그 발화 성분의 위에 악센트에 의존하는 패턴(악센트 성분)이 중복되어 句전체의 음조가 만들어진다.

상기 사토(1991)가 제시한 발화 성분의 특징을 본 실험 항목에도 반영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의 3.3.3에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3.3.3 변형 운률의 패턴과 조건

(1) A型 → 原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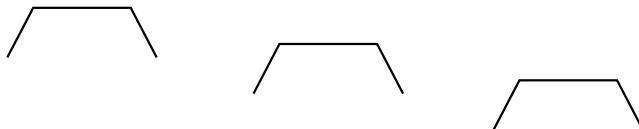
- ① 운율의 변화가 없는 실험항목으로 일본어 화자에 의한 발화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② 학습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운율을 가진 일본어의 판단 근거로 사용.

(2) B型 → 「への字」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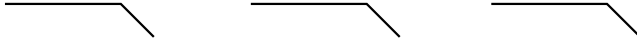
- ① 세 개의 구의 높이의 변화가 없다.
- ② 「への字」 패턴의_F0값은_start200Hz,_max:300Hz,end:160Hz

(3) C型 → B型+발화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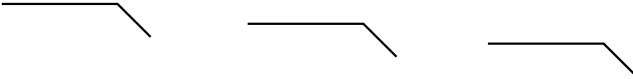
- ① B型的 조건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운데 句를 기준으로(100%), 그 앞의 句를 110%로 올리고, 그 뒤의 句를 90%로 하여 각 句간에 3단계로 이루어진 발화성분을 첨가하였다.

(4) D型 → 각 句의 마지막 박에 하강조를 형성



- ① 일본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패턴.
- ② F0값은 start:300Hz,max:300Hz,end:160Hz

(5) E型 → D型+발화성분



① D型的 조건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운데 句의 주파수를 기준으로(100%), 그 앞의 句의 주파수를 110%로 하고, 그 뒤의 句의 주파수를 90%로 하여 각 句간에 3단계로 이루어진 발화성분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6) F型 → 고저의 변화가 없는 평탄조(한국인의 특징)



- ① 박과 句간의 박자의 차이가 없음.
- ② F0값은 start 250Hz,end:250Hz

(7) G型 → F型+발화성분



① F型的 조건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운데 句를 기준으로(100%), 그 앞의 句를 110%로 올리고, 그 뒤의 句를 90%로 하여 각 句간에 3단계로 이루어진 발화성분을 첨가하였다.

4. 실험의 결과 및 분석

4.1 앙케이트 결과

청취 실험 후 동경어로서의 허용도의 평가의 기준과 이 실험에 관한 감상을 적게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로부터 얻은 몇 가지 회답 예를 소개한다.

먼저 동경어 화자의 회답에서는

① 가장 평가를 낮게 한 실험항목으로는 [고저의 차이가 없는 실험항목-F형]으로 대답한 사람이 동경어 화자의 피험자 전원이 F형으로 대답했다. 실험항목이 고저의 차이를 극대화 시켜 전혀 고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실험항목이지만 동경어로서 고저의 차이가 없이 평탄조로 발화되는 음성에 대하여 동경어로서 허용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일본어에는 없는 변형운율 패턴에 대한 의견도 있어 [일본어에서 높은 음이 계속 이어지는 운율 패턴도 동경어로서는 듣기 거부했다]라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도 3명이 있었으며 이러한 예에는 D型·E型이 속한다.

③ [평가 기준으로서 7로 평가한 것은 동경어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음성, 2-6까지의 평가는 조금은 이상하지만 일본어의 방언에는 있을 듯한 음성, 1은 방언에도 없는 음성]이라는 기준으로 채점을 했다]라는 의견과 [아무리 들어도 원음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하게 되었다] [동경어로서의 허용도라는 기준 보다는 동경어로서 이상한지 아닌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견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피험자가 각각의 기준으로 자연스러운 동경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의 의견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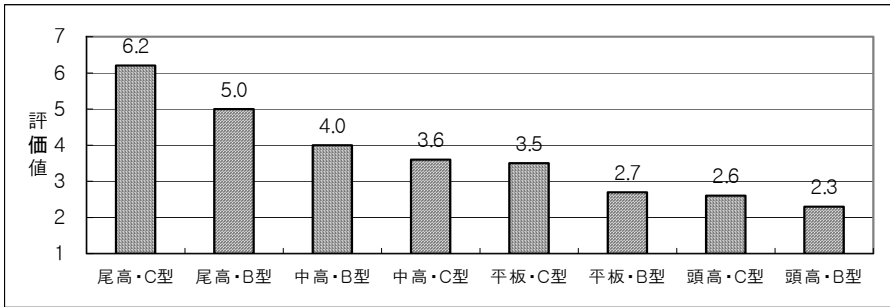
① [판단이 어려웠다. 일본인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학습자의 운율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② [먼저 원음을 확실히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되는 실험 항목과의 상이점을 발견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다] [이상한 인터네이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발화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회답 내용도 있어, 동경어 화자가 확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 것에 비해, 학습자들은 일본어의 운율의 특징을 지각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실험만으로도 일본어 운율의 습득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일본어 운용의 습득 방법, 또는 어프로치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4.2 동경어 화자 10인에 의한 평가

그림1 동경어 화자의 「への字」패턴에 대한 평가(상위 8항목)



먼저 동경어 화자의 평가 결과로부터 상위의 결과를 얻은 8개의 항목을 개관 해 본다. 28개의 실험 항목 중 「への字」패턴의 변형 운용항목인 B형·C형이 상위권 8항목 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나타난 것은 역시 악센트의 위치가 변형되지 않은 「への字」패턴의 [미고형]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고형], [평판형], [두고형]의 순이었다. 동경어 화자에게 있어서 변형된 악센트 위치를 갖는 「への字」패턴의 운용에 대해 동경어로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한 내용중 가장 자연스럽다고 평가 한 내용부터 순서대로 기술을 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일본어의 악센트의 위치가 지켜지고 발화 성분을 갖는 음성(尾高・C형)
 두 번째는 일본어의 악센트의 위치가 지켜지고 발화 성분을 갖지 않는 음성(尾高・B형)
 세 번째는 일본어의 악센트의 위치가 지켜지지 않는 예 중 [중고형]과 [평판형], (中高・B형・C형, 平板・C형)

네 번째는 일본어의 악센트의 위치가 지켜지지 않는 예 중[평판형]과 [두고형]이다. (平板・B형, 頭高・C형・B형)

이러한 그룹은 동경어 화자가 느끼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말 할 수 있다. 실제 학습자의 발화에서 생리학적으로 발화성분을 제외한 발

화는 나타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경어 화자는 악센트의 위치가 지켜진 음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도 언급이 되어지는 사항이므로 본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악센트의 위치가 틀려진 음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해 보도록 하겠다.

악센트의 위치가 틀려지면서 「への字」패턴을 갖는 음성 중에서 음운론적인 표현을 빌리면 첫 번째 박자가 높고 두 번째 박자가 낮아지는 패턴을 갖는[두고형]의 경우가 「への字」패턴으로 발화가 되면 그 음성은 동경어 화자에 있어서 일본어로서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고형]과 [평관형]의 경우는 악센트의 위치가 지켜진 음성보다는 평가가 낮음을 알 수 있으나 28개의 실험 항목중 한국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평탄조의 음성G型・F型]의 음정보다는 자연스럽다는 평가 결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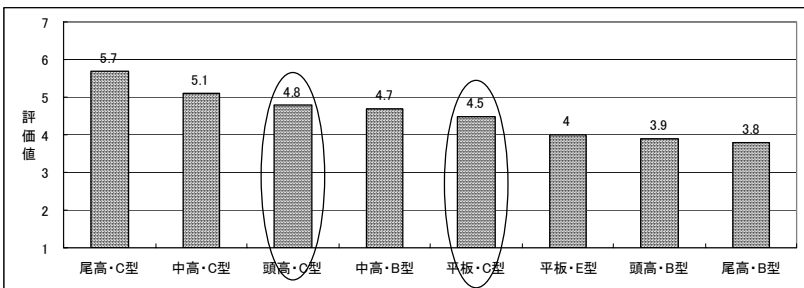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일본어로서 지켜져야 할 요소들이 지켜지지 않은 음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패턴화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학습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결과가 될 것이다.

4.3 동경어 화자와 학습자의 「への字」패턴의 변형운율에 대한 비교

4.3.1 한국인 학습자의 평가로 본 「への字」패턴의 자연스러움

그럼 여기에서는 동경어 화자에게 실험한 내용에 대해 피험자를 바꾸어 한국인 학습자가 판단한 상위 8항목과 함께 그 평가치를 그림2에서 보도록 하겠다.

그림2 한국인 학습자의 「への字」패턴에 대한 평가(상위 8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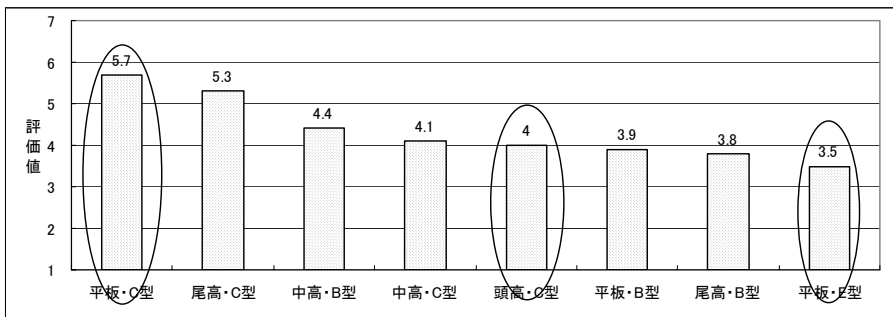
한국인 학습자의 평가 결과는 그림2에서 제시한 동경어 화자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への字」패턴으로 나타나는 음성이 상위 항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동경어 화자의 경우에는 악센트 핵의 위치 관계가 동경어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평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한국인 학습자들은 모든 악센트 형의 예문이 「への字」패턴으로 발화된 음성에 대한 평가치가 상당히 높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그림4에 동그라미 표시) 즉, 동경어 화자와 가장 큰 평가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두고형의 C형로 동경어 화자의 평가 결과는 7점 만점에 2.6점이었으나 한국인 학습자의 평가 결과는 7점 만점에 4.8점이라는 평가치를 보이고 있으며 또, 원래의 동경어에는 악센트 핵을 갖지 않는 평판형의 예문의 경우에도 평판형 C형에 대한 동경어 화자의 평가 결과는 7점 만점에 3.5으로 만점의 50%정도의 평가에 그쳤으나 한국인 학습자의 평가에서는 7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인 학습자들이 판단하는 동경어의 자연스러움은 동경어의 단어별로 정해져 있는 악센트의 차이보다는 발화 성분인 「への字」패턴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句 안에서 「への字」로 나타나는 인터네이션의 특징이 동경어로서의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2 중국인 학습자의 평가로 본 「への字」패턴의 자연스러움

그럼 여기서 중국인 학습자가 판단한 상위 8항목과 함께 그 평가치를 그림3에서 보도록 하겠다.

그림3 중국인 학습자의 「への字」패턴에 대한 평가(상위 8항목)



중국인 학습자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어지는 부분은 동경어 화자의 결과와 한국인 학습자의 결과와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악센트 핵이 나타나지 않는 예문이 「への字」패턴으로 발화 된 실험 항목(평판형·C型)을 가장 자연스럽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두고형의 「への字」패턴도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일본어에는 존재 하지 않는 운율 형태인 평판형의 E형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중국어의 성조의 분포와 일본어 운율의 습득에 관한 영향력을 조사한 주춘약(朱春躍:1989), 양립명(楊立明:1991)에서 밝혀졌듯이 성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어에서는 제일 마지막 음절이 급격히 하강하는 성조의 분포가 가장 많아 이러한 성조에 익숙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일본어의 [평판형], 그리고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 핵]이 나타나는 일본어의 발화문에 대해 청취의 착각 현상(聽錯覺)을 일으키는 것이 일본어 운율 습득을 방해하는 문제라고 지적 한 부분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맺는말

본고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의 의식 중에는 동경방언(이하 동경어)의 발화문에 나타나는 피치의 변화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 지각하는 의식 속에는 패턴화 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인 학습자와 동경어 화자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또 동경어 화자와 비교하는 대상의 학습자 그룹을 한국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어를 달리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학습자 중에서도 언어 체계를 달리하는 중국인 학습자 그룹을 피험자로 하여 학습자의 그룹 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이하에 정리 해 보도록 한다.

동경어 화자는 자연스러운 일본어라는 관점에서 단어별로 정해져 있는 악센트의 위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악센트의 위치가 틀려지는 예에 있어서도 「への字」패턴으로 발화를 하였을 경우에는, [두고형]이 가장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두고형]의 단어에 있어서는 「への字」패턴으로 발화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함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야기를 하자면 악센트 형을 암기

하는 방법을 위주로 교육한다 하더라도 악센트 핵의 위치가 틀러지면 자연스러움의 평가가 낮아지는 [두고형]부터 암기를 하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판단하는 동경어의 자연스러움은 동경어의 단어별로 정해져 있는 악센트의 차이보다는 발화 성분인 「への字」패턴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句 안에서 「への字」로 나타나는 인터네이션의 특징이 동경어로서의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에서는 제일 마지막 음절이 급격히 하강하는 성조의 분포가 가장 많아 이러한 성조에 익숙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일본어의 [평판형], 그리고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 핵]이 나타나는 일본어의 발화문에 대해 청취의 착각 현상(聽錯覺)을 일으켜 일본어 운율 습득을 방해하는 문제라고 지적 한 양립명(199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이 자신의 청각력을 바탕으로 외국어의 운율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서로의 언어체계가 다른 학습자에게는 네이티브와는 다른 범주를 가지고 학습목표 언어의 운율적 특징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해당 언어의 운율적 특징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지각 범주의 특징을 찾아 가는 연구도 앞으로는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한다는 면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鮎澤孝子(1990) 「日本語學習の發話における母語の韻律の干涉」 『研究報告』3 「日本語音聲」總括班1990年度研究成果中間報告, pp.57~61
- _____ 他(1997) 「『東京語アクセント聞き取りテスト』について」 『21世紀の日本語音聲教育にむけて』文部省科研費 「國際社會における日本語についての総合的研究」研究班3、平成8年研究成果報告書, pp.179~204
- _____ 他(2000) 「アクセント習得の縦斷研究-3年半の調査結果-」 『第14回日本音聲學會全國大會予稿集』pp.177~182
- 上野田鶴子(1989) 「文法とイントネーション」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第2卷, 明治書院, pp.298~315

- 大山玄他(1989) 「日本人が發話した英語のプロソディーに関する一検討」 『音聲言語Ⅲ』
近畿音聲言語研究會、pp.1~15
- 佐藤大和(1991) 「日本語の音聲合成における韻律」 『シンポジウム日本語音聲教育—韻
律の研究と教育をめぐる—』 凡人社、pp.14~18
- _____ (1992) 「プロソディーの生成」 『言語』8月号(特集プロソディー)、大修館書店、
pp.58~65
- 杉藤美代子(1993) 「話し言葉の科學と音聲」 『國際化する日本語—話し言葉の科學と音
聲教育—』クバプロ、pp.8~23
- 朱春躍(1989) 「中國語話者の日本語アクセントの習得—その特徴と指導上の問題点を
めぐる—」 『國際化する日本語—話し言葉の科學と音聲教育—』クバプロ、
pp.179~184
- 崔壯源(2003) 「日本語らしさの許容度の實態調査—アクセント核の移動が影響する日本
語らしさ—」 『第17回日本音聲學會全國大會予稿集』日本音聲學會、pp.213~218
- _____ (2004)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악센트 청취에 관하여- 오답 패턴과 일본어 화
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일어교육학회 제6회 국제 학술 발표회 및 심포지
엄 논문집』한국일어교육학회、pp.45~49
- 中川千恵子(2001) 「日本語學習者のプロソディー習得とその指導法」、お茶の水大學博
士論文
- 日本語教育學會(1991) 『日本語教育機關におけるコース・デザイン』凡人社、pp.21~59
- 松崎寛(1995) 「日本語音聲教育におけるプロソディーの表示法とその學習効果」 『東北
大學文學部日本語學科論集』5号、pp.85~96
- 水谷修他(1991) 『日本語の韻律に見られる母語の干涉—音響音聲學的對象研究—』、重
点領域研究 『日本語音聲』平成2年度研究成果報告書
- 関光準(1989) 「韓國語話者の日本語音聲における韻律的特徴とその日本語話者による評
価」 『日本語教育』68号、pp.175~189
- 楊立明(1993) 「中國語話者の日本語述語の韻律に見られる母語の干涉」 『日本語音聲と
日本語教育』[D1班]—外國人を對象とする日本語教育における音聲教育の方策
に関する研究—、平成4年度研究成果報告會
- Cooper, F.S.et al(1951) The inter-conversion of audible and visible pattern as a
basis for research in the perceptipn of speech, Proc. Nat. Acad, Sci U.S.37,
pp.318-325